

프리미엄=가성비… 카드사, ‘혜자전략’으로 우량고객 유혹

신한, 6년만에 프리미엄 카드 출시
연회비 대부분 바우처로 환급
하나·국민·우리카드도 영업 속도
실질 부담 낮추고 혜택은 극대화
연체율 낮은 우량고객 확보 포석

신용카드사가 연회비의 상당 부분을 바우처로 돌려주면서 ‘프리미엄=가성비’란 공식을 세우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량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동안 프리미엄 카드 영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한카드가 6년 만에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선보였다. 연회비는 해외 겸용 30만원이다. 매년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맹점 관계없이 1%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연간 6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만원을 추가로 돌려준다. 실적에 따라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나카드는 프리미엄 상품군인 ‘제이드’ 3종을 발표했다. 연회비는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다. 연회비



신한카드 프리미엄 신용카드,

가 가장 저렴한 제이드 프라임은 매년 2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앞서 KB국민카드는 ‘헤리티지 클래식’을 공개했으며 우리카드는 쇼핑 특화 상품인 ‘디어쇼퍼’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연회비는 각각 15만 7000원, 15만원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하는 배경에는 우량고객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소비여력이 높은 이용자를 통해 신용판대(M/S) 잔액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데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연체 위험이 높



하나카드 프리미엄 상품군 ‘제이드’

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한다.

최근 카드사의 영업 전략은 ‘가성비 프리미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급형 신용카드 대비 적립률을 높게 책정하면서 연회비의 50~70%는 포인트나 상품권 등 현금성 혜택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프리미엄 카드의 대중화를 시기상조로 보는 만큼 혜택은 높이고 실질적인 연회비 부담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 신용카드 대비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프리미엄 카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프리미엄 전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MZ세대부터 시니어를 겨냥한 프리미엄 카드를 연이어 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신환잔액은 105조1652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높으며 지난 1분기 연체율은 0.90%다.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6

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카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카드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카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02년 ‘카드대란’ 이후 과잉 영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카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알짜카드’로 신규 회원을 확보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혜자카드’ 등으로 불린 가성비 카드가 프리미엄 카드로 대체되고 있는 것.

카드대란은 지난 2002년 발생했다. 카드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과잉 영업과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이뤄졌다. 내수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지만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카드를 중심으로 과잉 경쟁을 방지하는 선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현금성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연회비 부담을 낮춘 만큼 소비여력과 패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청년들, 금융지식 높지만 실천능력 부족”

금행넷-도도한 콜라보 공동조사
금융지식 71점, 금융행동 47점
“행동실천 중심 금융교육 필요”

청년들이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재무계획 수립과 지출 기록 유지와 같은 일상 기반의 재무 실천능력이 취약했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12일 청년 맞춤형 플랫폼 ‘열고닫기’를 운영하는 도도한 콜라보와 ‘청년 금융역량과 금융행복도’ 공동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열고닫기 플랫폼 이용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만 39세 이하 청년 300명 중 259명이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금융 역량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67점으로 집계됐다. 금융 지식은 71.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행동은 46.72점으로 가장



유토이미지

낮았다.

청년들이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 역량과 금융 행복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 행동이 높을수록 자신감, 만족감, 안전감 등 금융행복도 전반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전반적인 금융행복도

가 높았다. 청년 재정 불안정성이 주관적 금융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열고닫기는 행동 실천 중심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실제 행동과 습관을 유도하는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금융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산지원형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 청년이 상대적 박탈감과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도 필요하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오늘날 금융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복잡한 금융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본 금융’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금융역량이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삶의 질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거래 줄었는데 강남·과천 절반이상 ‘신고가’

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47% 감소
고급 주거지 중심 신고가 다수 발생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를 중심으로 종전 최고가 이상 거래가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서는 여전히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약 47% 감소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강남구(59.0%)와 경기 과천시(62.5%)에서는 전제 거래의 절반 이상이 종전 최고가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서울 강남구는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과천시는 과천푸르지오써

밋, 래미안수르, 과천자이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으로 거래는 감소했지만 강남과 과천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며 “실거주 수요와 향후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3월 9.10%에서 4월 5.97%로 하락했다. 서울은 18.75%에서 15.44%, 인천은 2.97%에서 2.55%, 경기는 3.75%에서 3.08%로 각각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는 7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 조기대선 등 정책 변수에 대한 관망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랩장은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는 선택적 매수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부 고가 단지의 신고가 거래가 기준점(양키) 역할을 하면서 주변 단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IBK기업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나선다

ESG정밀진단 컨설팅 등 제공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을 선보였다.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 ESG 수준을 상세 진단하는 ‘ESG정밀진단 컨설팅’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ESG정밀진단 컨설팅’은 25개 산업

군을 기초로 ESG 규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 선정하고 기업실사를 통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업이 당면한 ESG 리스크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제공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공급망 내 협력사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해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김인태 혁신금융그룹 부행장은 12일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최적화된 개선이행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타 기관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공급망 대응 평가가 시급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 은행 영업점에 신청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신한銀, GPT 연계 금융지식 Q&A 서비스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AI) ‘GPT 모델’을 탑재한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애저(Azure) 클라우드를 활용한 고성능 생성형 AI ‘GPT 모델’ 개발 관련 사항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고, 지난 3월 금융보안원 보안 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신한은행은 직원용 AI 업무비서 플

랫폼 AI ONE에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고객의 상담 요청에 맞춰 상품 내용·업무 규정·금융 정보 등 질의 응답 방식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고객 상담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직원용 플랫폼에 이어 고객이 직접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중 ‘AI 창구’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